

## 고통에 답하는 복음 사건의 고찰

안 경 승\*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통을 다룬다. 고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에 대응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고통은 순기능을 가지며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했지만, 현대 문화 가운데 전반적으로 그 가치와 의미를 잃고 있다. 고통이 환영할 것은 아니지만 잘못 받아들이거나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이 논문은 고통을 이해하고 대응 하는데 있어서 기독교가 주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기독교의 자원 중에서 복음 사건에 집중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사심, 그리고 그 중간(the middle)을 구분한다. 그리고 죽음, 부활, 중간의 주제 각각이 고통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며, 이것이 고통의 대응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 지를 연구한다.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은 고통의 근본 원인이 되었고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또한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부활은 고통 중에 바라보게 하는 소망의 근거와 내용이 된다. 실제적 회복, 고통으로 인한 성장, 그리고 영원의 소망이 고통을 견디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중간의 시기는 역설의 시기이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긴장과 괴리가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한다. 또한 창조, 타락, 회복, 소망의 약속을 기억하며 더 깊게 하나님과의 경험적 만남으로 고통을 대응한다.

**주제어:** 고통, 십자가, 죽음, 부활, 소망

---

\* 아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교수

• 이 논문은 2025년도 아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I. 여는 글

기독교상담 현장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운동장과 같다. 행복과 기쁨은 의도적이고 공격적으로 선택하고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찾아오는 고통은 방어해야 하고, 와 있는 고통은 견뎌야 한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듯이 행복을 추구하며 고통을 극복하기도 한다. 반면에 방어즉공(防禦即功)이란 말도 있다. 방어가 최상의 공격이 된다는 것이다. 고통이라는 퍼즐 조각이 있어야 행복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필요한 전략이 된다.

더구나 즐거움은 계속되면 될 수록 그것을 즐거움으로 누리기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고통은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크고 작은 것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 고통을 받거나 당하는 것을 좇는 일부 마조히스트(masochist)를 제외하고, 고통은 우리가 따라가지 않아도 찾아오고 피해 가려도 어느새 와있다.<sup>1)</sup> 시편기자는 우리 삶이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말한다(시 90:10). 한 작가는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표현한다(Bloom, 2022: 8). 우리가 고통을 원하지 않지만 고통을 겪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피하려 해도 겪게 되는 것이 고통이다. 공격에만 정신을 모을 수가 없다. 삶이라는 운동장에 찾아오는 고통을 다뤄야 한다.

이 논문은 고통을 이야기한다. 고통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돕고 돌보기 위해서 고통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방향을 찾아본다. 이해하고 답을 안다고 고통이 그리 쉽게 물러가지도 않고 영원히 꼬리를 감추지도 않지만 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생활에도 그렇지만 이 과제를 풀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이 논문은 기독교의 복음 사건, 즉 예수님의 금요일의 죽음과 주일의 부활 그리고 중간(the middle)에 속하는 토요일의 가르침에 근거한 고통 이해가 기독교상담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한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주일에 다시 사셨다. 십자가는 부활로 완성되고 부활은 십자가로 세워진다. 그리고 그 중간에 토요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토요일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토요일을 사는 사람은 주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아직은 고통 중에 견뎌야 한다. 회복과 승리의 주일을 알고 문득 문득 맛보았기에 바라보며 산다. 하지만 죽음

1) 일반적으로 ‘열정’으로 번역되는 ‘passion’은 고통을 어원(passio)으로 갖고 있고 passive(수동적) 역시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고통은 active(능동적)에 대비되는 ‘어떤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다.

과도 같이 생명을 시들게 하는 고통의 기세가 여전한 오늘을 살아간다. 억울한 삶이 있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다툼과 미움을 경험한다. 내 부족함이나 육신의 한계로 인해 힘들게 여겨지는 일을 경험하기도 한다. 어떤 때는 망가진 세상의 무게가 고통하는 이유로 다가온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색깔의 고통을 경험한다. 토요일은 금요일과 주일 사이의 긴장과 역설을 감내하는 시간이다. 하지만 금요일의 십자가와 주일의 부활이 있기에 거기에서 붙잡은 지혜와 가르침은 고통 속에서도 토요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한다. 우선 고통은 무엇이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피며 한계가 무엇인지를 분별한다. 그리고 죽음, 부활, 중간의 시기와 고통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을 찾는다.

## II. 펴는 글

### 1. 고통의 본질과 일반적 대응

국제고통학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는 1979년 이후 두 번의 개정 과정을 거쳐 2011년 고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고통(pain)은 “불쾌한 감각적 및 정서적 경험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그와 유사한 경험”이다. 개정된 내용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고통의 경험이 “설명” 된다는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1979년 정의에서는 “실제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과 관련되거나 그러한 손상으로 ‘설명되는’ 불쾌한 감각적 및 정서적 경험”이라고 되어 있었다. 분명 고통으로 힘들어하면서도 그것을 표현(설명)을 못하거나 서투른 사람들(유아, 노인, 장애인 등)이 있다. 이들의 목소리가 자칫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고통에 대한 여섯 가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① 고통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다양한 영향을 받는 개인적 경험이다. ② 통증과 통각은 다른 현상으로 본다. 어떤 사람이 고통스러운 감정이 뒤따르는 감각이 있다면 통증을 느낀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통증은 감각 신경의 활동만으로 추론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③ 사람들은 삶의 경험을 통해 통증의 개념을 배운다. ④ 통증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는 사람의 말은 존중되어야 한다. ⑤ 통증은 적응적 역할을 하지만 기능 및 사회적·심리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통(pain)과 유사한 용어에 고난(suffering)이란 시련(trial)이 있다. 고통은 감각적으로 또는 정서적 그리고 영적으로 불편한 것이다. 고통을 호소하는 원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인에 기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괴로움을 호소한다. 반면에 고난이나 시련은 아픔의 시간이 지속되고 특별히 더 괴로운 아픔을 견뎌 낸다는 의미로 쓰인다. 무게와 시간을 더해서 고통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다(Thomson, 2024: 126). 그러나 실제 논의나 표현에서 엄격한 구분을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고통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아픔을 경험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한다.

### 1) 고통에 대한 대응

고통은 대응을 자아내는 기능을 한다. 일단 고통에서 벗어 내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아픈 곳이 어딘지, 어떤 증상인지, 뭐가 아픈지 살피고 벗어나려 한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절실한 것은 고통에 대한 어떤 객관적 지식이 아니다. 고통의 본질에 대한 분석이나 설명도 부차적인 것이다(손봉호, 2008: 21). 그들이 원하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견뎌야 한다면 적어도 고통의 의미라고 알고 싶어 한다. 고통을 없애려는 것이 당연하고도 필요한 대응 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분별해야 할 것이 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란 인류 공통의 숙제 앞에서 그 고통을 풀어내려는 해법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고통을 해결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이다. 고통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문화를 형성한다. 의식주의 대부분의 결과물은 불편함과 고통에 대한 반응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배고픔이나 갈증 그리고 추위나 더위로 인한 고통이 의복과 먹을 것과 거주지를 만들어 내게 했다. 또한 이전에는 생각조차 안 했던 수 많은 것들이 고통이 가져다 주는 문제, 슬픔, 아픔,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실제로 의학과 과학 기술을 포함한 현대 문화의 발달은 고통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고통을 만나는 것도 드물어 지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떨쳐 버릴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한편 세상의 문화가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면에 어떤 전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sup>2)</sup> 사람들의 성향이 변화하고 있다. 고통에서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을 찾기 보다는 지금 여기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2) 이와 관련하여 김규보(2022)는 고통에 대한 현대의 지배적 담론이 지닌 병리성을 탈의미화, 고통 기피, 고통의 개인화, 고통 비교, 고통의 영화로 분석한다.

여긴다(Keller, 2018: 122). 여기서 구현하는 세계관은 인간이 사는 동안 이 땅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의미를 찾는다 해도 그것은 현재와 지금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희생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떤 믿음의 대상(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어떤 가치(국수주의 등)를 위해서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못한다.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의 것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목표를 찾지 못한다. 다시 말해 내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유일한 근원이 나 자신이 된 것이다. 우리 문화 내에서는 나 자신은 개인의 자유, 자아 발견, 개인적 풍요와 성취의 주체로 자리 잡았다(Keller, 2017: 24-25). 이 과정에서 내 행복을 방해하는 것 중에 고통만큼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것이 없다. 인간의 욕망이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고통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되었다.

또한 의학의 발전은 진통과 마취로 육신의 고통 문제를 해결한다. 다양한 정신의학 계통의 약물 개발은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고통의 내성을 약화시키고 고통을 지나치게 공포스럽게 여기는 결과를 낳았다. 한병철(2021: 11)은 이런 사회를 진통사회 또는 성과사회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고통을 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로 여기게 된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심리학이 일조한다고 분석한다. 평안, 행복, 낙관주의를 말하는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고통으로 인한 부정적 경험을 긍정 생각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한다. 더 나아가 긍정심리학은 고통을 성과 논리에 종속시킨다. 회복력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것을 증진시켜서 인간을 최대한 고통에 무감각하며 행복한 성과 주체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트라우마 경험 조차도 성과 향상을 위한 촉매로 작용한다. 진통사회이자 능력에 의해 지배되는 능동적 성과사회에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되는 수동적 고통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다.

더불어 미디어 문화는 고통을 온전히 상상할 능력을 잃게 만들었다(손봉호, 2008: 209). 처절한 고통의 결과를 보여주는 폭력 영상물은 오히려 폭력을 모방하게 한다. 폭력의 희생자가 겪는 고통은 재미와 통쾌함에 묻혀버린다. 설사 미디어가 아픔과 굶주림을 담아낸다 해도 흉내 낸 아픔은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공감을 일으키기 어렵다. 예술도 삶도 SNS의 '좋아요'의 댓글에 부합해야 한다. 진통사회에서는 고통을 줄 수 있는 그 어떤 갈등이나 모순도 허락하기 힘들다(한병철, 2021: 13). 고통을 감내하는 시간과 기술을 순식간에 앗아가는 시청각 문화는 그렇게 고통을 무의미한 질병으로 만들어 버린다.

고통은 현대 문화에서 진통제나 마약제를 포함한 약물에서 해결하고 알코올을 비롯한 중독으로 묻혀지는 퇴물 거리가 되었다.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되었고 고통을 감내하는 기술 역시 점차 상실되었다. 고통이 보내는 의미와 붙잡아야 하는 가치를 찾아내려는 시도도 연습도 확신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우리를 지탱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토대가 없어져 버린 것이다.

둘째, 고통과 관련하여 왜곡될 수 있는 신앙에 대한 주의이다. 세상 문화의 영향이 신앙공동체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고통이 밀려나듯,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죄에 대한 이해가 모호해 졌다. 죄를 부담스럽고 버거운 주제로 받아들이고 돌봄의 현장에서도 고통의 분명한 뿌리가 되는 죄를 언급하는 것이 꺼려진다. 이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고통을 제거하려는 문화적 영향이 크다. 고통이 직면되지 않기 때문에 테이블 위에 올려지지 않고 그 근원조차 묻지 않게 된 것이다.

혹시 언급된다고 해도 우선순위가 모호해졌다.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가 죄의 실체보다 더 근원이 된다고 본다.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Welch, 1994). 이 논리에 의하면 고통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죄가 파생되는 것이다. 중독이나 쾌락 추구의 왜곡된 모습은 고통을 회피하려는 대처로 인해서 파생된 것이지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문제의 증상에 불과하고 고통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상처에서 비롯된 고통이다. 고통의 위상을 과도 평가하면서, 그 결과 상처와 고통을 다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여겨진 것이다. 결국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인간의 가장 깊은 필요라고 믿는다.

고통이 아닌 죄가 뿌리이다. 그리고 고통은 그 근원이 되는 죄를 분별하게 해 주는 통로로 작용한다. 고통을 경감시켜 줘야 하지만 그 이면의 죄를 간과하는 것은 중증환자에게 지속해서 진통제를 주며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다. 죄가 고통으로 치부되거나 설명될 수 없다. 죄는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을 거스리면서 시작된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죄로 인해 고통이 왔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서 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연하게 된 것이다.

## 2. 복음 사건과 고통

고통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이기에 꺼려지는 것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성경은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호소하는 고통의

현실, 고통이 들어온 이유, 고통이 허락되는 듯한 현실에 대한 신앙적 고민과 분노, 고통에 답하는 복음, 고통과 함께 하는 하나님 등을 진지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신학의 주제에서는 특별히 신정론(神正論, theodicy)을 통해 고통과 악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한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째서 악의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묻는다. 부당하고 모호하며 까닭을 알 수 없이 겪게 되는 고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의 전반적인 흐름은 신정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려는데 초점을 모으지 않는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며 소화해 내고 성숙해 가는가 이다(McGrath, 2010).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고통의 이야기는 고통 받는 사람을 이해하고 돕기 위한 핵심적인 자원이 된다. 우리는 이 자원 중에서 복음 사건에 집중한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뤄진 복음 사건(죽음과 부활)은 고통을 이해하고 견디고 회복하게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준다.<sup>3)</sup>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해 주신 죄사함의 기쁨, 그것을 위해서 담당하셔야만 했던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소망이 모두 복음 사건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러한 가르침을 십자가 죽음, 부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중간(the middle)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 1) 십자가 죽음과 고통

기독교는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고통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로 인해 죽음과 함께 고통이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그렇다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내가 저지른 어떤 특정 죄의 결과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Welch(1994)는 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다섯 가지 요소가 고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한다. 그 다섯 가지는 나 자신, 다른 사람, 아담, 사탄, 그리고 하나님이다. 같은 맥락에서 Lambert(2016: 248-255)는 고통의 원인을 여섯 가지로 분석한다. 자신의 죄와 타인의 죄, 세상의 세속성, 마귀와 귀신, 이웃의 아픔, 인간의 제한된 이해로 인한 혼란,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육체적 한계이다.<sup>4)</sup>

3) 십자가 신학에 근거해서 고통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바울로부터 시작되어 루터에게 이어진다(김막미, 2013). 이후 이 논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신학계 내에서는 Abraham Heschel, Jürgen Moltmann 그리고 여성신학자와 흑인여성신학자에게서 있었다. 주장의 논조는 달랐지만 십자가는 고통에 대한 질문이 맞물려 있는 현장으로 이해되었다. 현재는 고통 중에서 특별히 트라우마와 관련하여 하나님, 구원, 신학적 인간학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Rambo, 2019). 복음적 관점에서는 C. S. Lewis, Phillip Yancey, Alister E. McGrath, Timothy Keller 등이 고통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시한다.

고통의 원인에 대한 포괄적이지만 구체적인 분별은 균형 있는 대응에 도움을 준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만 지나친 자기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한다. 깊어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털게 해 주지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운명론적 자괴감에 머물지 않고 탄식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게 한다. 영적으로 분별은 하지만 모든 것을 영적 싸움으로 몰아가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 분명한 것은 고통은 이 세상의 한계와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포괄적인 영향력을 실감하게 한다. 몸살과 열로 아파하며 이곳 저곳에서 올려대는 경고음은 뭔가 잘못되었고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바로 고통이 그런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큰 소리로 알려 주려는 것이 있다. 첫째, 고통은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죄를 일깨운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죄의 결과인 고통으로 인해 죄를 깨닫게 된다(권수경, 2021). 이것은 마치 고통이 병의 증세로 나타나며 그 병의 실체를 알려 주는 것과 같다.

Keller(2019: 40)는 죄가 작용하는 점진적 성격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는 죄의 결과를 신체가 방사선에 노출된 후 일어나는 반응으로 비유했다. 방사선에 노출된 후에 그 즉시 고통을 느끼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나타난다. 원죄는 방사선과 같다. 죄로 인한 다양한 뒤틀림으로 인해 양산되는 즉각적인 그리고 어떤 때는 서서히 드러나는 결과물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삶의 근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한다.

둘째, 고통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인식하게 한다. 고통과 죽음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고통은 그 정도가 심해질수록 자기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상실하게 만든다. 또한 삶의 현실과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무너지고, 신뢰하며 붙잡았던 것들에 대한 죽음과도 같은 상실감이 엄습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킨다. 작은 죽음을 경험하고 그 종국에는 생의 마침인 죽음이라는 한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한계인 죄와 죽음의 심각한 문제를 풀어낼 해결책은 십자가 복음이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 세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능해졌다. 그 분이 우리가 초래한 모든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 몸소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에 가치를 부여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죽음, 고통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기초석이 된 것이다(Yancey, 2005: 224). 비록 우리가 세상을

4) 김진규(2024)는 고난(고통)의 의미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 범주로 고난을 정리한다: 응보적 고난, 훈계적 혹은 교육적 고난, 대속적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살아가는 동안 고통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십자가라는 참된 답을 가지고 살 수 있다. 고통은 여전 하지만 그것의 뿌리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내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다.

더불어 고통이 어떤 형태의 죄와 관련이 있든 고통의 당사자는 자신의 죄와 관련된 것을 회개로 반응해야 한다. 회개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그 해악을 깊이 깨우치게 된다. Keller(2017)는 두려움에 기초해서 죄를 슬퍼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회개가 기쁨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대해 깊게 기뻐할 때, 역설적으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다.

셋째, 고통이 알게 할 뿐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 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된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라는 말씀에 참여한다. 고통은 우리를 좀 더 예수님을 닮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Yancey, 2005: 225).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능동적으로 살려고 하면서 고통을 겪는다. 미움을 받을 수 있고(요 15:18-19) 핍박을 받을 수 있다(마 5:10-12).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환난을 겪고(행 14:22) 선을 행하려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된다(벧전 2:20, 3:14, 17).

고통은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되어 부정적인 것이지만, 그 모든 죄의 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지므로 인해 고통이 긍정적인 의미를 갖게 됐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수 없는 이들이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고 그것을 줄여주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다.

## 2) 부활과 고통

예수님은 죽었다가 삼 일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장 큰 숙제이자 깊은 고통의 원인인 죽음이 삼켜지고 승리가 이뤄졌다(고전 15:54).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기독교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세상과 미래를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통을 견뎌 내게 한다. 부활이 고통에 답하는 강력한 외침은 소망이 있다는 것이다.

소망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능력으로 작용한다. 첫째, 장차 이뤄지고 성취되는 미래의 소망 만이 아니고 현실적인 회복의 소망 역시 바라본다(Underwood, 2009). 예수님은 고통 받는 사람들을 붙잡고 여기

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의 신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기도 했다(마 9:20-22; 막 2:3-12; 눅 7:21). 지금 여기라는 현실에서 치유 받고 회복 될 수 있다는 소망은 고통 받는 사람에게 자포자기와 무기력을 극복하는 해독제를 줄 뿐 아니라 가능성이 라는 힘을 제공한다(Yancey, 2005: 207).

회복은 놀라운 기적 같은 손길로 다가올 수 있다.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덧 흘러가 버리게 되는 시간의 결과물일 수도 있다.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sup>5)</sup>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상황에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고(고후 1:9), 하나님의 견지심을 수 없이 경험하기도 했다.

Ralph L. Underwood(2006)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회복 가능성을 신뢰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지지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치유를 외면하지 않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너무 일찍 지지 만을 목표로 삼으면서 치유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삶의 한계에 대한 현실적 이해를 가지면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간섭해 주기를 소망하며 힘을 불어 넣는 돌봄이 요구된다.

고통이 떠나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무너지게 하지는 않는다. 고통의 틈에서 절망과 믿음까지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손길을 펼쳐 주신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던 ‘가시’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간구했지만 들어 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신의 고통인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고후 12:10)를 자랑한다고 말한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었다(고후 1:3).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고 있고, 그 분은 고통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고후 12:9). 자신의 약함이 강함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하며, 또 다른 고통의 파도를 용기로 맞서게 한다.

둘째, 고통으로 갖게 되는 의미와 교훈과 결과물에 대한 이해는 고통을 견디게 하는 실제적 소망으로 작용한다.<sup>6)</sup> 고통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 고통 당

5) 바울은 고통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고전 4:11-13).

6) 김영희(2010)는 고통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①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성장 및 성숙하게 해준다. ② 이 한계 상황에서 구조, 구원이 필요하고 인간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준다. ③ 고난 속 고통은 인간을 강인하게 단련시킨다. ④ 삶

하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독여 준다. 또한 그것이 나를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능력을 덧 입혀 준다. 손봉호(2008: 5)는 일부 철학자들이 고통의 무의미함을 언급한 것을 말하면서, 그 사실이 고통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통찰한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에 의미가 있다고 확신할 경우,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다(Frankl, 1984: 136).

고통 중에 의미를 찾고 성장해 간다는 소망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일이 있다. 대부분 이 준비는 고통이 있기 전이나 고통 중에 시작해야 고통 후에 거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과정이 아니다. 고통이 있기 전에는 소홀히 하고 고통이 있을 때에는 마음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질문으로 시작한다. “내가 좇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 동안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내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결국 소원하는 것은 무엇인가?”(Brooks, 2020: 16).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이런 질문을 하며 살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고통이 자신에게 메시지를 던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무엇을 바라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질문 없이 살아간다.

고통 중에 있다 해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하기 보다는 그저 견뎌가는데 힘을 쏟게 한다. 열정이 사라지고 아프고 허무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버거워 진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감도 소망도 잃어버린 채 무력하게 지내기도 한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고통은 가중된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 무엇을 믿고 쫓아야 하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속해야 하는 곳이 어딘지 모른 채 살아간다. 고통 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자신으로 인해 이해하기 힘든 본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 사람은 외롭고 믿을 것이 없고 추구할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질문을 할 수 없고 고통이 지나간 후에 목적을 잃어버린다. 더구나 이 시대는 붙잡을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전 세대 사람들이 의존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던 위대한 대의나 기관에 대한 믿음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 버렸다. 믿음에 대한 믿음 자체를 잃어 버렸다”(Brooks, 2020: 110).

고통 중에 십자가를 지는 방식, 즉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것을 붙잡을 것인가를 묻고 도전하는 방식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를 갖게 한다. Nouwen(2004: 21)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내면의 소리, 즉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

과 인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가 생기게 해준다. 또한 고난의 의미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검증과 확립을 강조한다.

다. 그 소리에 희의를 품고 핑계를 만들고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끝도 없는 모순된 생각과 감정, 의견에 휩싸이게 된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옛 것을 흘려 보내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만들어 갈 수 있다. 그것이 지금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새롭게 다시 발견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삶은 이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 보는 또 다른 세계이다. 이전에 자신 인줄 알고 살았던 자아의 자기(ego self)가 죽고 영혼이 복원되어 소망의 진정한 약속들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서 추구하는 삶이 가능해 진다. 고통이 영혼을 드러내게 한 것이다 (Brooks, 2020: 140).

더 나아가 고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빚어낸다(Keller, 2019: 43).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형성하는 믿음, 소망, 사랑(고전 13:1-13), 인내(롬 5:1-5; 약 1:2-4), 겸손(골 3:12), 절제(갈 5:23; 벨후 1:6)는 다른 식으로는 우리 안에 빚어지기 어렵다. 고통이 가져다 준 것이다. 베드로는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유혹을 거절하는 강인한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벨전 1:7)이라고 말한다. 히브리 기자는 고통이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할 뿐 아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히 12:10-11)를 맺게 한다고 기록한다.

셋째,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내세의 소망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계 7:17), 그 분의 나라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그리고 아픈 것(계 21:4)이 있지 않다. 고통과 불공정함이나 억울함이나 모호함이 모두 해소 된다. 그리고 이 영원의 회복 현장은 단지 미래적 사건으로 머물지 않는다. 미래를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미래를 근거로 지금 행동한다. 미래의 기대가 가득 차서 현재를 뛰게 한다. Jame K. A. Smith(2024: 229)는 그리스도인에게 미래는 “기다림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바가 나의 능동적 삶을 형성한다”라고 표현한다. 미래와 영원은 지금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강력한 자원이다. 고통을 영원의 관점에서 보고 인내 가운데 영원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한다.

더 나아가 성경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 (고후 4:17)이라고 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말한다. 바울이 자신이 겪은 고통에서 버텨갈 수 있었던 것은 고통에 선행하고 고통에 함께 하며 고통 이후에 얻게 되는 영광 때문이었다. Thomson(2024)은 인내 가운데 고통을 견디고 소망으로 나아가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이루게 되는 영광에 있다고 강조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인내와 고통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부활이 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참는 것에만 머물거나 금욕주의에 빠지지 않고 회복과 치유를 기대할 수 있다(Underwood, 2009). 반면에 부활에만 초점을 맞춰 고통의 가치를 무시하고 승리주의만 외치는 것 역시 한계를 가진다. 십자가에 기반해서 부활을 이해하고 부활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말하면서 서로 비추어 균형을 가지고 해석할 때 고통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이 중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 3) 중간(the middle)과 고통

Rambo(2019: 35)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시도하며, 중간이라는 단어를 가져온다. 복음 사건을 두고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과 다시 사신 주일 사이의 중간인 토요일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당혹스러운 영역이다. 이 시간에 대해서 천주교는 성토요일이라고 표현했다. 개신교에서도 이중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을 토요일로 상징화하며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를 인간의 고통과 관련하여 찾아보려는 시도가 있다(Lewis, 2001). 중간으로 지칭하는 이 시기의 특징과 가르침을 고통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분한다.

#### (1) 역설의 시간

토요일은 중간에 낀 이상한 날이다. 혼란과 규명의 중간,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의 중간, 어둠과 빛의 중간, 절망과 기쁨의 중간이다(Ortberg, 2017: 281). 그래서 중간의 시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 영역에서 역설을 경험한다. 첫째, 토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두 개의 현실이 공존하는 시기이다(전성민, 2023). 그래서 고통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현실 세계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역설적으로 경험된다. 죽음과 부활, 현실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이다. 이 두 개의 현실이 모두 경험되는 현재의 매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인 듯 보이는 현실이 있고 어떤 때는 괴리가 경험된다. 죽음을 만나고 삶을 만나지만 죽음이 끝도 아니고 삶이 새로운 시작도 아니다. 견디기 무거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남아 살아가는 두 개의 이야기가 얽혀지는 것을 경험한다.

둘째, 중간의 시기는 과거의 죽음과 미래의 소망을 아우르며 과거와 미래의 시간이 통합되는 역설을 경험한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과거이고 부활은 미래이다. 과거가 있어서 현재가 가능하고 현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가 시간과 함께 살아가기에

누구든 시간의 흐름을 거슬릴 수 없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함께 흘러간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억이라는 능력을 통해 과거와 관계를 맺는다. 현재는 지금, 여기서 직접 경험하고 있고 미래는 앞을 그려보는 역량을 가지고 친해진다. 고통은 현재 진행형의 것들도 있지만, 적잖은 고통이 과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특히 트라우마 같은 고통은 흔적으로 남아 상처가 되고 아물어지지 않은 채 지속된다(Rambo, 2019). 과거가 과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기억이 왜곡되어 기억 자체가 상실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새롭게 그 사건을 또 다시 경험한다. 과거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파괴력을 가지고 파고드는 것이다. 과거가 재현될 뿐 아니라 다시 각색되고 살아나서 고통을 지속시키면서 현재 만이 아니고 미래를 그려보는 것조차 어렵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과거를 소화해 내는 전혀 새로운 틀로 작용한다.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과거는 흘러 보낼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과 기억이 우리를 침범하여 파괴할 수 없으며, 십자가 은혜로 인해 새롭게 해석된 과거는 붙잡을 것만 붙잡을 수 있게 한다. 우리의 소명은 과거를 재정렬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다(Jones, 2019).

미래는 이미 도래했지만 그러나 아직의 시간으로 무엇보다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누리고 기쁨으로 미래를 맞을 수 있게 한다. 부활의 약속의 비전은 그림에도 파고드는 과거의 그림자를 피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을 견디고 죽음과도 같은 과거를 감내할 수 있게 하는 비전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시간과 관련한 십자가와 부활의 역동성을 이렇게 표현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 12:2).

셋째, 토요일에는 고통과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역설이 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곧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요 16:20-22). 그러나 근심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고 기쁨을 누리듯이 그 고통 후에 그들에게 영원히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실제로 제자들은 박해 가운데 고통을 마주했지만 기쁨을 빼앗길 수 없었다. 고통과 슬픔 속에서 기쁨이 지속되는 것, 즐거움을 누리면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 현실의 역설이다.

구약의 지혜자들 역시 우리 삶의 이러한 긴장을 고백한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잠 14:13). 슬픔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담히 이야기한다. 전도서는 기쁨을 붙잡아야 한다는 지혜를 권

고하기도 하지만(전 9:7, 10:19), 슬픔과 근심의 가치를 인정하는 반전적 지혜(counter-wisdom)가 참 지혜라고 가르친다(Wright, 2023).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전 7:3).

고통과 기쁨이 서로 공존하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이지만 필요하고 가능하기에 경험하는 현실이다. Phillip Yancey(2005: 117)는 성경이 고통과 기쁨을 함께 이야기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사용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전에 그 분을 신뢰하고 의탁하기 원한다. 그 의탁의 과정을 묘사하는데 있어서 기뻐하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더 나아가 기쁨 역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스린다. 고통이 부활의 사실과 거기에 담긴 진리를 무색하게 할 수 없다.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조차도 슬픔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부활로 인해 죽음이 무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었다는 것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의 현실에서 우리가 가질 자세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벧전 4:12). 베드로는 고통하게 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다. 더 나아가 즐거워(rejoice) 하라고 한다(벧전 4:13).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overjoyed) 위한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McKnight, 1996: 249).

고통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여유가 생기고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 고통이 괴로움이 되지 않게 도와 준다. Steven C. Hayes(2018)는 수용전념치료를 소개하면서 책의 한 장 제목을 ‘인간의 괴로움’으로 이름 짓고 괴로움의 보편성과 고통과 괴로움을 구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고통은 수용하자고 말한다. 현실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더해져서는 안된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러다 보면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 두려움은 더욱 커지고 힘은 빠져 간다. 고통이 왔지만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면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는 말이 있다(전성민, 2023: 258). 시련을 겪다 보면 슬픔, 원망, 적대감, 분통, 쓴 마음과 같은 부정적이고 강한 감정을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그런 감정에 함몰되어 거기에 삼켜지면 우리는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된다.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에 대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구나' 하고 역설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통으로 인한 왜곡된 결과물을 분별하게 해 준다. 슬프지만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공황으로 빠져들지 않는다.

## (2) 기억, 관계, 감정

우리는 중간 시기를 지나가며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고통이 있다는 것을 함께 지고 가야 하는 씨름을 해야 한다. 이 씨름에 도움이 되는 것이 기억이다. 우리는 기억에 근거해서 믿음을 붙잡고 사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내 지혜와 이성으로는 세상을 견뎌내기도 고통을 이해하기도 어렵다. 전도서 기자가 그가 가진 권력과 부와 지성을 총동원해서 인생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고 성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결론은 헛됨과 허무함이라고 고백한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전도서 기자의 다른 한편의 역설적 결론은 그러니까 '기뻐하라'(전 11:9-10)와 '기억하라'(전 12:1-7)는 것이다. 삶에서 즐거움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마무리 짓고 있다.

Wright (2023: 233-234)에 따르면 기억은 인생을 인도하고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 간다. 특히 신명기(8장)가 강조하고 있듯이 구약에서 말하는 기억은 단순한 회상 그 이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언약적 충성 행위이다.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이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기억의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심판, 그리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가르침이다.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마지막에 만물과 피조물을 공의와 자비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Wright, 2022: 121-122).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라는 과거와 심판이라는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것(전 12:1-2)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신약은 전도서 기자가 제시하는 인생의 헛됨과 고통에 대해 십자가와 부활로 그 답을 더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헛됨을 허무함으로 표현하며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롬 8:20). 소망은 그 허탈한 허무함을 간절한 기대로 바꾸어 놓는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인생의 의미를 회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영원히 갖게 한다. 창조, 타락에서 구속이 개입되면서 온전한 퍼즐이 맞춰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것은 알려진 과거이다. 우리가 또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며 유업을 받는 산 소망을 가진 이들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알려진 미래이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현재와 내일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 받았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이시며 참 소망 되시는 그 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다. 모호한 오늘이 다시 또 고통과 슬픔으로 다가 오지만 그래도 기억을 붙잡고 일상을 살아간다.

다른 한편 기억이 조금 더 깊게 우리 삶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관계와 감정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암기 과목을 준비해서 시험을 잘 치르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다. 기억을 붙잡고 고통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맥락에서 기억은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또한 진정한 관계가 이뤄지는 만남은 단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고 친밀한 감정적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마치 기억의 실체에 감정이 채색되면서 그 기억과 기억의 대상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정신의학자인 Curt Thomson(2024)은 신경과학의 관점에서 두뇌가 아래에서 위로 작용하고 그런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원리를 설명한다. 이것은 지각과 인식 그리고 의미 부여의 과정을 그리게 해 준다. 우리는 세상을 피부 안팎으로 지각하고 그런 후에 지각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기억하는 과정 역시 이 과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소망이 인지적 인식 과정에서 신뢰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까지 기억되기 위해서는 지각적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한 정서적 교감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론적으로 이해한다면 아이들 같은 경우 그들이 어떤 희망을 품게 되고 그 결과로 자신의 불편함을 견뎌 내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실제적인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다(Thomson, 2024:35). 이 실제적 관계가 경험되는 첫 번째 현장은 주요 애착 대상인 양육자와의 관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분에게까지 확장된다. 어떤 대상과의 관계가 구체적이고 애정이 담긴 감정 교류의 경험을 통해 감지 되듯이 우리의 마음이 기억하는 과거와 미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바탕을 둔 체험에서 시작된다. 그 과정에 함께 역사하는 성령과 성경을 통해 활성화된다.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은 중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험적으로 깊어지는 시기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깨닫고 알아가는 지적인 차원의 교류만이 아니고 모든 지각으로 다가오는 관계 대상이 되신다. 특히 우리의 고통의 체험을 함께 하며 감정의 세계에서 교류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경적 진리를 기억, 지식 그리고 감정, 더 나아가 소망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다. 감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하

하나님은 냉담한 분이 아니고 깨어진 관계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는 분이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로 인해 언제나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고통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창문으로 들여다 보듯이 외부에서 고통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고통은 “잠깐이야” 하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누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도 아니다(Thomson, 2024: 161). 무슨 명령만 내리는 분도 아니고 엄중히 심판을 내리시고 돌아서는 심판 집행자도 아니다. 그 분은 창문 밖이 아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고통 때문에 상처 받기로 결심하셨다(McGrath, 2010).

하나님은 공감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다(최승락, 2021). 사람의 공감은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 마음의 공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완전히 들어가서 그것을 그 분의 것으로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만이 아니고 무엇을 느끼는지를 함께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힘들어 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을 들으셨고, 보셨고, 아셨고 기억하셨다고 말하고 있다(출 2:23-25, 3:7-8).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깊게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동사가 단지 보고 듣고 안다는 차원이 아니다. 친밀하게 다가서서 경험을 나누며 안다는 것이다(Fretheim, 2024: 232-233). 하나님은 그들이 견뎌야 하는 고통을 몸소 겪는 방식으로 그 고통 가운데 친히 들어가신 분이다.

그리고 성경이 이러한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모습이 그분의 눈물이다(사 16:9-11; 렘 48:31-35).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신다.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통곡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된다.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중간의 시기에 만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며 기뻐하시며 슬퍼하시며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이성만이 아니고 감정으로 경험한다. 내 고통의 감정을 공유하는 주님과 만남의 경험은 기억과 이성이 다가갈 수 없는 주님을 알게 한다.

이러한 하나님을 시편의 저자들이 고통 중에서 만나게 된다. 이들은 그 만남에서 경험하는 깊고 다양한 희로애락을 시의 형식으로 표현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의 장으로 들어간다. 시인들은 숨겨진 곳에 감춰진 슬픔과 두려움을 드러내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아픔으로 말문이 막힌 마음에 언어를 부여한다(Jones, 2019).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고통의 이야기를 직접, 솔직하게, 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정을 공유하며 고통의 현실

을 확인하는 분이다(Calvin, 2010: 167).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 분의 성품 때문이다. ‘그의 많으신 긍휼’(벧전 1:3)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이유이다. 그리고 그 넘치는 긍휼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우며 고통에 찬 세상 속으로 아예 직접 들어오시기로 하셨다(손봉호, 2008).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피조물을 만나셨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이 무언지 안다는 것이다. 성육신은 고통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은 미천한 출생과 성장의 과정을 걸쳐 불명예스럽고 불공정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삶의 모든 한계와 좌절을 직접 겪었다. 그 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일하시면서 모든 악, 불의, 고통, 불공평, 몸부림, 좌절, 고뇌하는 의문을 직접 겪었다. 그게 그렇게 말 같이 쉽게 견딜 만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친히 경험해 보셨다.

성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고통의 표현이고 공감의 통로였다(최승락, 2021). 히브리서 5:7절에서는 예수님이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말한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요 11:33-35). Wright(2022: 30)는 이 구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상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분리되고 고립된 이미지 대신에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그려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가복음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셨다. 평화에 이르는 일을 알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 앞에 놓인 도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41-44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고통으로 예수님은 우셨다. 그리고 세상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고 겪으셨던 인간의 고통에 대해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드러난 표현이다. 이 단어가 담고 있는 본래 의미는 인간의 내면 부분(inner parts)을 가리킨다(Kittel & Friedrich, 1975: 548). 이 감정이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몸 깊숙이 느끼는 깊은 감정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도자가 없는 자들, 억압 받는 자들, 빈곤한 자들, 또는 슬픔에 잠긴 자들을 불쌍히 여

기셨다(Welch, 1994). 정죄 받고 외면당했던 세리들에게 다가갔다. 아픈 사람과 근심하는 사람을 붙잡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여인들의 고통을 붙잡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셨다(김정형, 2019: 136-140). 당시 여인들이 사회에서 그렇게 존중 받지 못했던 대상 중 하나였다. 여인이 질병을 앓거나 장애를 가졌거나 죄를 지은 경우 종교적 정죄와 차별의 시선이 동일한 상황의 남성 보다 더 따가웠다. 예수님의 마음은 낮은 곳,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슬픔을 느끼는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있었다. 예수님은 그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털어 주도록 위임받은 그 몸의 지체들을 통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한다(Yancey, 2008).

### Ⅲ. 닫는 글

사람들의 고통이 나뉘지는 곳이 돌봄의 현장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만난다. 그 고통이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불가피하게 다가오는 고통이지만 회피하거나 왜곡하면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기독교상담은 그 대응의 자원과 전략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고통받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이다. 이 논문은 이 자원 중에서 복음 사건을 중심으로 주님의 죽으심, 그 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중간을 살아가는 현실에 집중하여 고통과의 관련성을 찾아보았다. 각각의 사건이 주는 교훈과 자원이 고통을 이해하고 견뎌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죽음은 죄와 고통의 긴밀한 관련성을 알려주며 그 해결의 가능성까지 알려준다. 그리고 고통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발전하게 돕는다. 부활은 삶의 현실에서부터 내세의 영원의 소망에 이르기까지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다. 부활의 선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약속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는다. 중간의 시기는 역설의 시기임을 수용하고 모순이 아닌 역설이기에 조금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 분의 우리를 향한 눈물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세워져 간다.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음 사건의 가르침과 소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논문 투고일: 2025년 01월 30일

•논문 수정일: 2025년 03월 03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3월 07일



√

√

√

√

## 【참고문헌】

- 김규보 (2022). 현대 고통 담론에 대한 성경적 고찰. **복음과 상담**, 30(3), 5-34.  
<http://dx.doi.org/10.17841/jocag.2022.30.3.5>
- 김막미 (2013). 몰트만의 십자가 신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고난 받는 하나님을 통한 희망의 발견. **한국개혁신학**, 37, 220-255. <http://dx.doi.org/10.34271/krts.2013.37.220>
- 김영희 (2010). 고난 속 고통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 고통을 통한 인생의 의미. **복음과 상담**, 14, 218-239. <http://dx.doi.org/10.17841/jocag.2010.14..218>
- 김정형 (2019). **예수님의 눈물**. 서울: 복있는 사람.
- 김진규 (2024). 고난에 대한 성경 신학적 관점. **목회와 신학**, 3월호, 38-43.
- 손봉호 (2008). **고통 받는 인간: 고통 문제에 대한 철학적 성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전성민 (2023). **팔복: 예수님의 세계관**. 서울: 한국성서유니온.
- 한병철 (2021). **고통 없는 사회: 왜 우리는 삶에서 고통을 추방하는가** (이재영 역 *Palliativegesellschaft*). 서울: 감영사. (원전 2020 출판).
- Bloom, P. (2022). **최선의 고통** (김태훈 역, *The sweet spot*).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원전 2022 출판).
- Brooks, D. (2020). **두 번째 산** (이경석 역, *The second mountains*). 서울: 부키. (원전 2019 출판).
- Calvin, J. (2010). *Commentary on Psalms*, Vol.1. Trans. J. Anderson. Grand Rapids, MI: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www.ccel.org/ccel/calvin/calcom08.html>.
- Frankl, V. E. (1984). *Man's search for meaning*. New York: Pocket Books.
- Fretheim, T. E. (2024).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고통**. (조덕환 역, *The suffering of God*). 서울: 시들지 않는 소망. (원전 1984 출판).
- Hayes, S. C. (2010). **마음에서 빠져나와 삶 속으로 들어가라** (문현미, 민병배 역, *Get out of your mind & into your life*). 서울: 학지사. (원전 2005 출판).
- Jones, S. (2019). *Trauma and grace: Theology in a ruptured world*, 2<sup>nd</sup> ed.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Keller, T. (2017). **내가 만든 신** (윤종석 역, *Counterfeit Gods*). 서울: 두란노, 2017. (원전 2010 출판).
- Keller, T. (2018). **고통에 답하다** (최종훈 역, *Walking with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서울: 두란노, 2018. (원전 2013 출판).
- Keller, T. (2019). **방탕한 선지자** (홍종락 역, *The prodigal prophet*). 서울: 두란노. (원전 2018 출판).
- Kittel, G. & Friedrich, G., Eds. (1975).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VII. Trans. G. W. Bromile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 Lambert, H. (2016). *A theology of biblical counseling: The doctrinal foundation of counseling ministry*. Grand Rapids, MI: Zondervan.
- Lewis, A. (2001). *Between cross and resurrection: A theology of Holy Saturda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 McGrath, A. E. (2010).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김명호 역, *Why does God allow suffering?*).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원전 2000 출판).
- McKnight, S. (1996).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1 Peter*.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 Nouwen, H. J. M. (2004).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한정아 역, *The inner voice of love*). 서울: 바오로 딸. (원전 1996 출판).
- Ortberg, J. (2017). **예수는 누구인가** (윤종석 역, *Who is this man?*). 서울: 두란노. (원전 2012 출판).
- Rambo, S. (2019). **성령과 트라우마: 죽음과 삶 사이, 성토요일의 성령론** (박시형 역, *A theology of remaining*). 경기도: 한국기독교연구소. (원전 2010 출판).
- Smith, J. K. A. (2024). **시간 안에서 사는 법** (박재혁 역, *How to inhabit time*). 서울: 비아토르. (원전 2022 출판).
- Thomson, C. (2024). **고통을 지나는 중입니다** (오현미 역, *The deepest place*). 서울: 두란노. (원전 2023 출판).
- Underwood, R. L. (2006). Enlarging hope for wholeness: Ministry with persons in pain.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60, 3-12

- Underwood, R. L. (2009). Hope in the face of chronic pain and morality. *Pastoral Psychology*, 58, 655-665 <http://dx.doi.org/10.1007/s11089-009-0249-z>
- Welch, E. T. (1994). Exalting pain? Ignoring pain? How do we counsel those who suffer?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3).
- Wright, C. J. H. (2022). **회복하시는 하나님** (전의우 역, *Knowing God through the Old Testament*). 서울: 성서유니온. (원전 2021).
- Wright, C. J. H. (2023). **전도서,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묻다** (이철민 역, *Hearing the message of Ecclesiastes*). 서울: 성서유니온. (원전 2023 출판).
- Wright, T. (2022). **모든 사람을 위한 요한복음 II: 11-21장** (이철민 역, *John for everyone*). 서울: IVP. (원전 2004 출판).
- Yancey, P. (2005).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계십니까?** (이영희 역, *Where is God when it hurt?*). 서울: 생명의 말씀사. (원전 1997 출판).
- 권수경(2021). 고통의 신학적 의미. 미래교회포럼 발제문. [http://reformedjr.com/board05\\_04/16275](http://reformedjr.com/board05_04/16275)에서 2024년 8월 22일 인출.
- 최승락(2021). 고통의 신약적 이해. 미래교회 포럼 발제문. [http://reformedjr.com/board05\\_04/16549](http://reformedjr.com/board05_04/16549)에서 2024년 8월 22일 인출.
-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ain. Terminology: Pain. Retrieved July 30, 2024, from <https://www.iasp-pain.org/resources/terminology/>

**[Abstract]**

## **A Study on the Gospel Event Responding to Pain**

**Ahn, Kyung Seung\***

This paper deals with the pain that humans experience in life. It defines the meaning of pain and analyzes how people in our time have responded to it. While pain has the positive function, the paper finds that, in general, its value and meaning have been lost in modern culture. It discerns that while pain is not something to be welcomed, it should neither be avoided nor misunderstood. The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hristian teachings in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o pain,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gospel event. It distinguishes between Jesus' death on the cross, His resurrection, and what is referred to as "the middle" period. The study explores how the themes of death, resurrection, and the middle relate to pain and how they provide guidance for coping with it. As a result, Jesus' death on the cross reveals that sin is the fundamental cause of pain and that it can be overcome. Furthermore, pain is understood as a way of participating in Christ's suffering. The resurrection offers hope to cling to in the midst of pain, pointing to real restoration, growth through pain, and the hope of eternity, all of which help in enduring and understanding pain. The middle period is seen as a time of paradox, where one must accept the tension and dissonance that are difficult to comprehend. In response to pain, one must remember the promises of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hope, leading to a deeper experiential encounter with God.

**Key words:** pain, cross, death, resurrection, hope

---

\* ACTS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 Professor